

## 제 7 장

### 율법 경륜

율법 경륜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데서부터(출 19-20)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오순절에 교회가 출생할 때 끝이 납니다(마 27장, 행 2장). 따라서 율법 경륜은 대략 1500년의 기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구약성경의 거의 모든 책이 이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한 민족으로 성장하여 여러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 하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광야 생활(모세)
- 정복(여호수아)
- 사사기(재판관들)
- 열왕기
- 포로(아시리아와 바빌론)
- 고토의 회복(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 사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율법 경륜에는 모세, 여호수아, 삼손, 사무엘,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침례자 요한과 같은 주요 인물이 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이 이 율법 경륜에 살았습니다.

#### 1.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의 집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출 20:2).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창 15:13).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속박의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출 14장).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목격하였습니다(출 14:30-31). 이렇게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심을 유감없이 보여 주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으로 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8, 17절에는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라면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에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됩니까? 자, 여기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이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출 3:8, 17)
2.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신 것(출 14장 -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놀라운 권능을 목격한 이스라엘이 졸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불신을 보여 주는 예들입니다.

(1) 출15:22-26(홍해를 건넌 지 겨우 사흘 째 되는 날) - 물이 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분께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불평했습니까?

(2) 출16:1-5(홍해를 건넌 지 한 달 후) - 먹을 것이 없다!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했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3절)?

(3) 출17:1-7 - 물이 없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수 있음을 그들은 믿었습니까?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리라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외쳤습니까(3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까(7절)?

#### A. 시내 산의 이스라엘

이집트 탈출 후 석 달이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산의 언저리에 도착했습니다(출 19:1-2).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과 명령을 주고자 하신 장소입니다. 시내 산 도착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요약하며 나오는 두 단어는 "...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출14:30-31). 하나님께서 어떻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는지 보았습니다(출15:25). 하나님이 사막 한 가운데서 어떻게 먹을 것을 주셨는지 보았습니다(출16:11-15).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출17:6). 그들은 불평과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거듭 거듭 목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흔히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름을 따라 '모세의 언약'이라 합니다.

이 언약의 조건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서 그들이 맡은 부분을 이행하면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출19:5).

이스라엘이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협약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자기 몫을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출 19:8).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B. 자기 확신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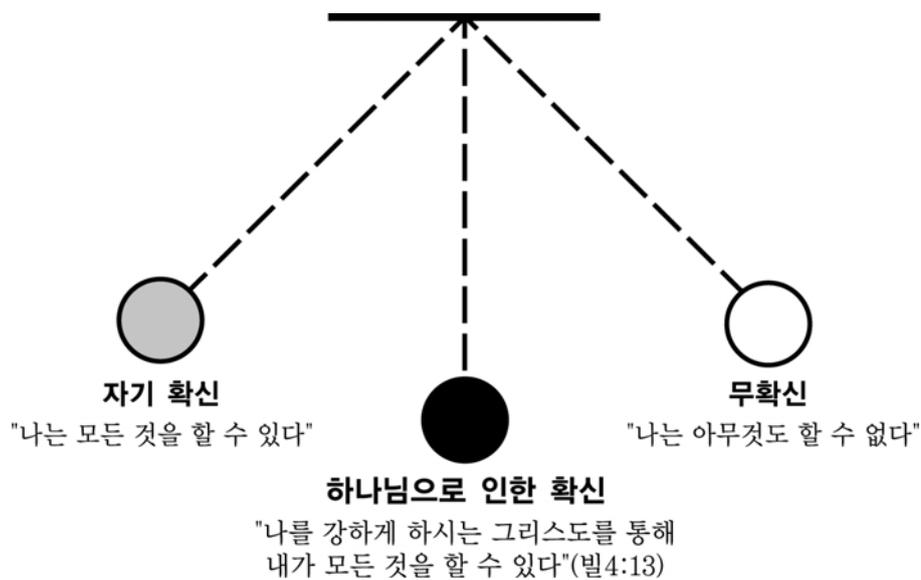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백성은 한 목소리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들은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후에 모세에게서 율법을 받았을 때도 그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출24:3).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주님께 순종할 만한 힘이 없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5장 27-29절을 봅시다. 이때에도 그들의 자기 확신은 매우 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습니다(29절). 말과 마음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28절). 그들의 마음은 불순종에 더 가까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 하나님은 백성이 얼마나 명령에 잘 순종할 수 있는지 보시려고 한 가지 시험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모으는 일에 대한 매우 단순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단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출16:20). 두 번째 규칙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출16:22-26). 그들은 처음에 이것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출16:27).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과 출애굽기 24장 3, 7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달리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악하고 반역하며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만나를 모을 때 주셨던 두 가지 규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사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자기 확신도 문제지만 확신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시계의 추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도움과 조력 없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요15:5).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 없이는 저희가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일하셔야만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31절과 마가복음 14장 66-72절을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확신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고 베드로 자신의 확신이었습니다.

### C.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이라는 독특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어느 민족도 받아 본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신4:5-8). 하나님은 총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삶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것이 십계명입니다(출20장, 신5장). 그 외의 명령들을 알고 싶다면 출애굽기 21-23장을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첫 사람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창2:17). 노아나 홍수 후 그의 자손들도 명령을 받았습니다(창9:1-7).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명령을 주셨습니다(창17:9-12).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법이나 명령이 있었습니다(출15:26; 출16:28).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어떤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내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 부르셨던 특별한 의미의 법이었습니다(출19:5). 여기에는 십계명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침과 규정과 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민족 즉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출19:3; 20:2). 이집트 사람, 가나안 사람, 그 외 세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모세와 이스라엘과 맺었습니다(출34:27). 수많은 법과 명령을 포함한 이 특별한 꾸러미는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 외의 다른 민족은 어떤 율법도 받지 못했습니다(신4:8).

## 2. 사람의 책임

하나님은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출19:5-6).

신명기 6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함이요, 또 네가 평생토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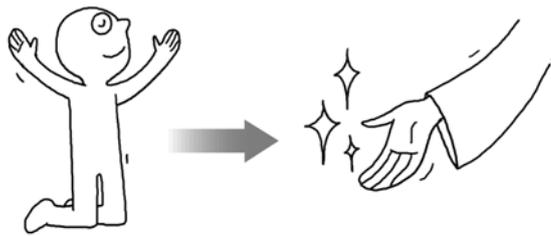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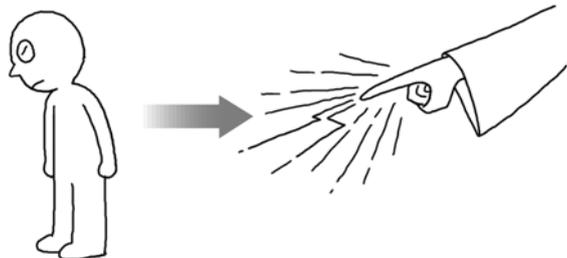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네 날들이 길게 되리라.

모세 언약의 조건에 따르면 순종에는 복이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 조건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순종(신명기 28장 1절)에는 축복이 따른다(2~6절)



불순종(신명기 28장 15절)에는 저주가 따른다(15~1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 명령들을 주셨습니다(신6:24).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 15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출19:8; 출24:3, 7).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 즉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 즉 모두를 지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적인 순종을 기대하십니다(마28:20).

**A. 실패했을 때의 행동 지침**

하나님은 그 누구도 -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간도 실패하고 불순종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가령,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법에 따라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희생물로 바쳐야 했습니다(레1-5장).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에 따라 각각의 희생에 맞는 짐승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요일1:9).

우리가 제단에 짐승을 희생물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한 희생물로 드리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요일1:9).

### 3. 사람의 실패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분명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정말 이 말대로 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나긴 반역과 불순종의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십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출20:3-5와 비교).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라, 하였도다(출32:8).

사사(재판관)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습니다(삿21:25). 왕정 시대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며 보냈습니다. 그들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이 우상들 곧 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일을 행하지 말라, 하시며 경고하신 그 우상들을 섬겼더라(왕하17:12).

열왕기하 17장 7-19절에도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옵니다(특히 15, 19절).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가장 큰 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행2:22-23; 살전2:15). 더욱 슬픈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길 거부했는데 이는 빌라도가 이방인이라서 그의 뜰에 들어가면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마치 다음에 나오는 경우와 같습니다. 한 은행 강도가 은행 문에 들어섭니다. 그는 은행 안에 먼지를 들이지 않으려고 도어 매트에서 자기 구두를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 문을 들어선 그는 갑자기 은행 창구 직원을 총으로 위협하고 10만 달러를 갖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24절에서 이 같은 사람들을 적절하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렌지 주스에 조그만 벌레가 있음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벌레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기 오렌지 주스에 낙타가 들어있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고 낙타와 주스를 한번에 꿀꺽 삼켜 버립니다. 빌라도의 뜰에 들어서는 것은 앞에 나온 작은 벌레와 같습니다.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은 낙타와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과 명령들을 지키는 데 필요한 힘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부모는 이 같은 방식으로(눅1:5-6)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 4.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른다고 배웠습니다(신28:15).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확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28장 16-26절에 나오는 저주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큰 심판 중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아시리아 포로

- 주전 721년
- 북 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혀감
- 왕하17:3-6 참조
- 심판의 이유: 왕하17:7-18

##### B. 바빌론 포로

- 주전 606년 (주전 586년 성전이 무너짐)
- 남 왕국 유다가 강력한 바빌론 군대에 의해 포로로 끌려감
- 왕하25:1-11 참조
- 심판의 이유: 대하36:14-17

##### C. 로마군의 예루살렘 파괴

- 주후 70년
- 예루살렘과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고 유대인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짐
- 마23:38; 24:1-2 참조
- 심판의 이유: 마23:37; 27:23-25; 요1:11

#### 5.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믿는 이가 자신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요 14:15,21,23).

이것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www.KeepBible.com)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를 금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요15: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행해야 합니다(눅6:46).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명령들도 지켜야 합니다.

순종의 일 순위가 되는 하나님의 첫째 명령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요일3:23 전반부, 행16:31).

당신은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악 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거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결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사 우리가 원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주심으로 자신의 참된 기쁨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빌2:13).

그리스도 없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패뿐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해 낼 수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우사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서 합당하게 걷게 하시길 원합니다”(벧전1:14)!